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뷰

Q1. 국민건강보험공단 면접 팁이 궁금합니다.

A :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건 **솔직함**입니다. 학교에서 팀 과제,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짓으로 꾸미거나 너무 화려한 연변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면접 질문에 대해 관련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 경험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꼬리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꼬리 질문에 일단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공단이 **좋아하는 이미지 상은 다정한 사람, 동글동글한 사람, 보들보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웃고, 동글동글하고 여유있는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도 내가 잘하는 것을 막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답변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저희 공단에서는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에 대한 경험을 고를 때 자신의 역할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모임이나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한 일이 분명했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Q2. 공단에서의 승진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며, 적절한 시기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요?

A : 우리 공단은 4급까지는 근속승진이 보장되어있어서 **4급까지는 자동으로 승진**이 됩니다. 대신 근무평가에 따라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도 **5년을 채우면 무조건 승진**할 수 있고, **3급 팀의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합니다**. 방법은 **2가지로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있습니다. 먼저, 시험승진은 **건강보험법, 사무관리규정, 법령, 인사규정지침 등 법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고, 심사승진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에서 자신이 팀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심사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통해 모두가 승진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4급이면 4급끼리, 입사년도가 같은 사람끼리 근무평가 평점에 따라 위에서 나뉘어져서 몇 퍼센트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2급 부장이나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심층 면접**을 봐야합니다. 또한, 같은 급수라도 **근무평점에 따라서 먼저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평점은 부장님과 지사장님이 평가하는 **부서장 평가**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팀원들이 전 팀원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 **하향식 평가**가 있습니다.

Q3. 사회복지 이론에서 배운 실천기술을 공단에서 잘 활용하는 편인가요?

A : 저희 기관이 민원기관이다 보니까 민원들을 상대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부서에서는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필요하신 것들에 대해 간헐적으로 상담하면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안내해드리는 요양 상담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거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나눕니다. 그러면 현장으로 투입되어 실제 민원인과 정말 1대1로 만나는데 그런 일이 하루에 2번, 3번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애인들을 대할 때 거침이 없으시기 때문에 훨씬 능력을 발휘하시는 편이고, 실천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실천기

술 중에서도 실천론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천론의 교수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긴 하였지만 현장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4. 공단에 취직하기 위해선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는가요?

A : 자격증은 가점이 있으니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 자격증**이 있으면 1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이 있으면 1점을 줍니다. 그리고 토익 점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공단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하고 있고 NCS 전형이기 때문에 확실히 스펙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고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인턴 전형이 없을 때는 **인턴 우대**를 해주어 우대 가산점이 들어가서 인턴 경험이 좋은 것이었고, 일단은 인턴을 하게 되면 인턴 전형을 낼 수 있고, 사실 제일 좋은 게 자소서에서 쓸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업무를 지원해주다 보면 어떤 업무인지 파악이 되고 그러면 자소서에 건강 보험에 대해서 훨씬 더 쓸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턴 말고도 계약직으로 우리 공단 근무자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Q5. 건강보험공단 요양직은 주로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데, 가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A : 예전만큼 가정이 열악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에 가면 뉴스에 나오듯이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저희는 그런 곳보다 일반 가정을 방문하여 그런 가정에서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방문조사하는 것이라서 환경적으로도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Q6. 다른 기관들과 공단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요?

A :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공단만의 메리트는 건강보험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건강보험을 대국민 서비스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에 취득이 안된 국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보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은 여성에 대한 복지가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족같은 분위기의 조직문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국지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공단은 전국에 총 **178개의 지사**가 있는데 이만큼의 큰 규모를 가진 공기업과 공단이 없습니다. 저희 공단은 지사가 많기 때문에 **가고 싶은 지사를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발령**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은 생활권 발령이라고 해서 애초에 입사할 때 자기 생활권을 입력하면 그 쪽으로만 발령을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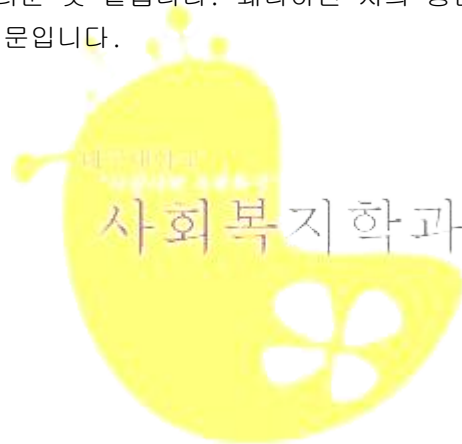
Q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기 위해 언제부터 목표를 잡고 얼마동안 준비했는지 등의 노력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A : **한 5~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17년도 정규직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소서 쓰는 데 첨삭이나 친구들한테 검사

받는 과정을 포함해서 2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발표나고 시험 칠 때까지 1주일 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 사이에 NCS를 공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NCS 전형은 지금부터 항상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NCS를 봐서 그것을 계속 공부하면서 감을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 3수생, 4수생이 많아서 준비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3수생, 4수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 뽑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도 많이 하셔서 결국에는 대부분 합격**하십니다.

Q8. 블라인드 채용도입 후의 합격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나요?

A :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공단이 되게 소수만 뽑고 NCS 전형이 아니고 예전에는 300명도 안 뽑을 때가 있었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보는 것은 **스펙, 경력, 학교 등이었고 그 때 들어오신 분들이 다 학력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문대, 보건대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도입 후 학력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CS와 면접을 잘 못 보면 불합격하긴 하는데 업무능력이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단에서는 직원 연수와 업무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방문후기

- 방OO

: 초반에 취업셀을 참여하게 된 계기도, 여러 기관에 방문을 해보면서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노인복지관과 공단에 차이를 인지하고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번에 진행했던 노인복지관 기관방문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 방문하는 것도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경상청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전에 생각했던 공단의 모습과 크게 다른 점이 많았다. 공단이 사회복지관에 비해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직원 간의 상하관계가 두드러지지 않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공단과의 큰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답변해주신 요양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분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복지관과 공단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두 기관의 큰 차이가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아이디어를 요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복지관에서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에서는 정해진 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프로포절이 늘 걱정되었던 나에게는 정말 알맞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방문을 통해서 기관 및 직원의 역할은 물론 나의 취업적인 면의 결정도 조금은 확고해질 수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김OO

: 기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화로운 편이었다. 관계자 분께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셨고, 각 기관을 안내해주시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내용을 이해하기 수월하였다. 보험료 인상의 원인도 건강보험공단이 지향하는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기 위함인 것을 파악하기 쉽도록 해주셔서 좋았다.

또한, 각 부서별로 파트 분류가 되어있었고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서 기관을 둘러보면서 공단의 장점만을 보고 온 기분이었다. 내가 본 공단은 오로지 수직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 내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협업 능력이 돋보이는 곳이라서 공단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